2017 해외 한국문화 홍보 유공 포상 후보자 공적

구분	추천기관	인사 성명 (성별, 나이, 국적)	소속 및 약력	공적 요지(추천 사유)	과거 포상기록	비고 (수공기간 등)
장관 표창	주 프랑스 파리 한국문화원	에르베 페조디에 (Hervé Péjaudier) (남, 63세, 프랑스)	ㅇ현 프랑스 이마고 출판사 한국문학 번역 총서 <센느코레엔느 Scènes Coréennes> 기획 및 편집장 ㅇ현 Festival K-Vox 파리 한국소리 페스티벌 예술감독 ㅇ현 EHESS (프랑스 국립고등사회과학대학) 연구소-일반 연구원 ㅇEHESS 문화인류학 박사 (한국의 샤마니즘 : 김금화 만신의 굿 연구) ㅇ불문학 학사/석사-현대 프랑스 불문학 전공 (CAPES 고등교육 전문 교수자), 철학 석사	1-**한국문학의 세계화를 위한 번역/출판을 위한 공적** **(번역가/출판인):** 1997 년부터 프랑스에서 공역자 한유미와 함께 수십편의 한국 희곡, 판소리 및 한국 현대소설 등을 번역/출간해 오고 있다. 2004 년부터는 **프랑스 이마고 출판사에 한국문학번역서 센느 코레엔느(Scènes Coréennes)** 총서를 만들어 기획/편집장으로 지금까지 24 권의 불어 서적을 출간했다. 그중 대표작을 살펴보면 한국 연극을 대표하는 오영진 <맹진사댁 경사>, 오태석 <초분>, 허규 <물도리동>, 노경식 <하늘먼큼 먼나라>, 김광림 <우리나라 우투리> 등을 불어로 번역/출판했다. 또한 전통 판소리로 <흥보가>, <수궁가>와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<사천가>를 출간했고 지난 6 월에는 고전 한글소설과 판소리가 들어있는 <숙향전/숙영낭자전/숙영낭자가>를 출간했다. 한국 문학에 대한 그의 열정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소설가인 성석제의 <위풍당당>, 그리고 아름다운 문체가 김훈의 <화장>과 <현의 노래>를 프랑스 유명 출판사인 필립 피키에와 갈리마르 출판사에서 번역하고 출판할 수 있었다. 더불어 한국 샤머니즘 전문가로서 한국의 만신 김금화의 자서전 <복은 나누고 한은 푸시게>를 지난해 <한-불 수교 130 주년> 기념으로 기획한 파리 가을 페스티벌의	**ㅇ2000년 한-불 문화상 (Prix Culturel France-Corée)** 한국 연극을 프랑스에 널리 알려 기여한 공로 **ㅇ2016년 파리 한국문화원이 임명한 K-Culture 서포터즈로** 선정되어 한국문학과 한국문화를 프랑스에서 적극 홍보하는데 기여함 **ㅇ2017년 9월**	**1998년 -현재**

구분	추천기관	인사 성명 (성별, 나이, 국적)	소속 및 약력	공적 요지(추천 사유)	과거 포상기록	비고 (수공기간 등)
			ㅇ프랑스 국영 방송 유명 라디오 프로그램 프로듀서로 수편의 드라마 제작했고 그 중 <한국 음악의 밤>이라는 제목으로 6 시간 분량의 음악 프로그램 제작 La nuit de la musique coréenne (2011) ㅇ번역가 및 극작가	한국의 굿 공연과 동시에 불어 번역/출간해서 프랑스 독자들에게 아주 큰 호응을 얻었다. 2-**판소리/창극 불어 공연자막으로 판소리 대중화에 기여함 (공연자막가/불어 아니리 광대)** 한국 전통예술에 대한 그의 호기심과 박식함으로 지난 2001 년과 2002 년 파리에서 개최된 <상상 페스티벌 Festival de l'Imaginaire>과 프랑스 유명 페스티벌인 <파리 가을 페스티벌 Festival d'Automne à Paris>에서 **판소리 5 바탕 (춘향가, 심청가, 적벽가, 흥보가, 수궁가)** 공연을 위한 불어번역 및 공연 자막을 맡게되고 해외에서는 처음으로 판소리 5 바탕이 제대로 소개되었다. 이 파리에서 공연 성공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다음해 2003 년 7 월과 8 월에 각각 뉴욕 링컨센터와 에딘버러 페스티벌에서도 판소리 다섯바탕이 초청 공연되었는데 이때 영어자막도 이들의 불어자막에서 도움을 얻어 영어권에서도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. 이후 한국의 무형문화재인 판소리는 2003 년 겨울에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으로 등재하게 된다. 또한 파리, 리옹, 아비뇽에서 공연되었던 이자람의 창작 판소리 <사천가>, <억척가> <이방인의 노래 : Au revoir Monsieur le président>공연의 불어 자막을 맡아 공연 성공을 이루면서 프랑스 관객들이 전통 판소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는데 일조했고, 특히 지난 2016 년에 개최되었던 한-불 수교 130 주년 기념 행사의 하나로 공연되었던 국립 창극단의 <창극 변강쇠와 옹녀>의 공연에서도 섬세하고 문학적인 불어 번역자막을 선사하면서 프랑스 관객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. 이외에도 프랑스 전역 파리, 리옹, 디종, 아비뇽 등에서	**6일** 한국문학번역원 주최 **한국문학번역상 (Prix de traduction littéraire) : 불어권 최고 번역가상 수여 예정** 김훈 <현의 노래 (Le Chant des cordes, Editions Gallimard, 2016)> 갈리마르 출판사	

구분	추천기관	인사 성명 (성별, 나이, 국적)	소속 및 약력	공적 요지(추천 사유)	과거 포상기록	비고 (수공기간 등)
				한국연극과 전통 탈춤/굿 공연이 있을 때마다 멋진 공연자막으로 프랑스 관객의 찬사를 받아오고 있다. 더불어 에르베 페조디에 씨는 프랑스 아니리 광대로서 <판소리 흥보가> 및 <판소리 숙영낭자가>를 한국의 북고수의 장단에 맞춰 관객들 앞에서 불어로 이야기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21 세기 판소리 대중화/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. (예: 벨기에 브뤼셀 창작의 집에서 2010 년에 판소리 흥보가 불어 이야기 완창을 한 바 있음) 3-파리 한국소리 페스티벌의 창설자 (Festival K-Vox, Voix Coréennes) 한국전통음악을 대표하는 판소리에 대한 그의 사랑으로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/민족음악가/공연연구가들을 함께 모아서 지난 2012 년 겨울에 파리에서 <한국소리 페스티벌>을 창설했다. 이후 2013 년부터 해마다 6 월에 개최되는 이 소리 페스티벌에서는 정기적으로 판소리 공연을 개최하고 있고 한국 전통예술을 중심으로 심포지엄, 컨퍼런스, 영화 및 다큐멘터리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프랑스 관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다. 더불어 <판소리 세계화>의 일환으로 <유러피언 아마추어 소리꾼 컨테스트>를 개최해서 한국전통음악을 사랑하는 유러피언을 발굴하고 이들을 한국에 초청해서 현지에서는 어떻게 판소리가 전승되고 공연되는지 보여주는 <한-불 전통문화 아카데미>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. 올해로 제 5 회를 맞은 <파리 한국소리 페스티벌>은 인간문화재 고 박송희 명창으로 부터 물려 받은 귀중한 <판소리		

구분	추천기관	인사 성명 (성별, 나이, 국적)	소속 및 약력	공적 요지(추천 사유)	과거 포상기록	비고 (수공기간 등)
				숙영낭자가>를 그의 제자인 민혜성 소리꾼이 선보이며 벨기에 브뤼셀, 프랑스 파리와 방돔(6 월 9 일부터 7 월 29 일)까지 2 개월간 이어지는 긴 여정의 소리 페스티벌을 기획해서 한국문화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.		